

자취방 허위양도 사례

1. 사건 경위

가. 사건 발생일: 2018년 12월에서 2019년 2월로 추정

나. 발생 경위: 에브리타임 어플, 장터. 원룸 게시판에 양도 의사 없이 다수자와 양도 약속

다. 내용: 2019년 4월 3일 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 국제문화대학 민원 접수.

전반적으로 비슷한 피해경로로 발생하였음.

- 1) 에브리 타임 어플의 자취방 양도 글을 보고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함.
- 2) 번호 교환 이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양도 일정을 주고 받음.
- 3) 가해학생의 학생증, 자취방 계약서를 확인 제시해주는 모습으로 피해자들은 양도에 대한 확신을 얻음.
- 4) 한달 치 월세를 선 입금 후, 입주 및 방구경 일정을 조율.
- 5) 예정된 입주날짜에 짐을 빼지 않거나 입주 날짜를 잊어버렸다 등의 이유로 입주일정을 미룸.
- 6) 이때부터 피해자들은 해당 학생이 입주/방구경 일정 반복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낌.
- 7) 가해 학생에게 방세 환불을 요구하자, 추후 입금을 약속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미룸.
- 8)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과 수차례 환불 요구를 받은 후에 원금을 돌려줌.
(7명 신고자 진술에 의거). 끝.